

봄날

묶인 발 풀고 나온

연하디연한 몸짓

연초록 사연을 흘는다

흠내음 그득한 뜰에

더운 입김으로 돌아난

목숨

숨겨둔 말들 안으로만 삭히며

모진 세월 속에

더 푸르른 소망 하나

파릇한 새싹 틈울 때까지

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

지난겨울 설한풍에

죽은 듯이 숨죽이며

마디마디 저린 이야기를

당신은 알까

🔄Revision #2

★Created 8 March 2025 07:05:26 by 강근숙

✎Updated 8 March 2025 07:08:30 by 강근숙